

수용자들 감동 “가라 온 세상을 향해”



한동글로벌 학생들의 부활절 뮤지컬 공연 감동의 장

“목사님, ‘우리 학생들도 교도소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라고 한동글로벌학교 서지훈 음악 교사의 요청으로 시작된 경북북부 제2교도소 수용자 예배 공연의 시작이 2009년 4월로 시작하여 벌써 10년째를 맞이했다. 서지훈 교사는 2009년 4월에 학생들을 인솔하고 처음 공연을 시작할 때는 만사의 몸이었다.

긴장감으로 인해 구토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시작한 공연이 10회째가 되었다.

매년 학생들이 공연을 준비할 때 처음에는 안일한 마음도 있었지만 교도소 집회의 날씨가 다가올수록 학생들은 심적인 부담으로 인해 힘들어하면서도 공연을 관람하는 수용자들에게 부활절 뮤지컬로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감으로 무장

하여 공연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2019년 4월 9일 학생들이 공연을 할 때 수용자들 중에선 이런 말도 했다 “목사님 오늘 공연은 가슴이 오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공연팀이 온다고 하니...” 웃기도 했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가라 온 세상을 향해”이다. 공연이 시작되고 30분이 지나자 공연하는 학생들도 울면서 공연을 하

기 시작했고, 참관하는 교도관들 중에 전장으로 보는 분도 있었다. 수용자들 중에서도 훌쩍, 훌쩍 흐르는 콧물과 눈물을 닦아 낸다. 한 수용자는 옆에 있는 수용자의 옆구리를 툭 치면서 “울지 말라고 하니”그 수용자는 이런 말을 했다. “너는 인간도 아니다.” 라고...

실지로 경북북부 제2교도소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엄중교도소이다. 어떻게 보면 피와 눈물이 없는 수용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심적 변화이다. 경북북부 제2교도소 소장인 유동백 소장은 이런 말을 했다. “수용자가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신앙밖에 없다고...” 게다가 “한동글로벌 학생들이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공연을 해 왔다. 감사하면서 학교 당국과 학생들에게 고맙다.” 라고 했다.

한동글로벌 학생들의 공연을 통하여 새삼 느끼는 것은 수용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

청송에서 이기학 기자

사설

건국일과 국부론에

논설위원 최순길 목사

인도 시인 타골은 대한민국은 ‘동방의 등불’로서 전 세계의 빛이 될 것이다. 고 예언했다. 3.1운동의 빛나는 정신과 국가 탄생의 노력에 힘입어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그렇게 탄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는 올바른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도 못할 수도 없었고 다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임시정부를 그것도 본국이 아닌 중국 땅에 세워 그 목적이 현실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해온 것이다. 이는 마치 태종의 아기를 가진 것처럼 그래서 상해임시정부는 하나의 태명처럼 지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세계에 알려지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1910년 한일 합병으로 일본에 식민지가 되어 있었지만 그 전에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말도 글도 이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상태였다. 심지어는 1905년에 일본은 우리 땅 독도를 일본 영토로 지도에 넣어도 그 때 누구 하나 말을 못하였던 것이 오늘 날 일본은 자기들의 영토라고 하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당시 세계는 특히 미국까지도 우리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마치 태어나지 아니한 아기와 같았다. 그야말로 임시는 임시이다. 48년 건국절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를 비판한다. 그러나 이 관점은 잘못된 것이다. 1919년에는 공화정을 선포하고 준비하는 과정일 뿐 국가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948년 이 때에야 비로소 영토, 국민, 주권의 필수요건을 갖추어 출범한 헌법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은 국가로 탄생 증명서가 있는 이유로 건국론의 주장이 된다. 세계에 대한민국을 공포함으로써 하나의 국가로 등록되는 것이다. 그간 6.25라는 동족상쟁의 무서운 전쟁도 있었지만 1948년의 건국론과

이승만의 국부론이 공복절과 함께한 정부수립 74주년 기념식과는 별도로 건국 100주년 기념식 행사를 한다면 혼돈스러운 건국일이 온 국민에게 나라 사랑에 대한 혼돈을 가져올 것이다. 마치 국가도 국제사회기구에서 인정을 승인하는 절차가 있었기에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이라’ 하라 할 것이다.

원 구두가 백 구두이 듯 수많은 건국이나 다를 바 없다. 서로의 사관이 다른 견해로 논쟁이 된다면 이념의 편 가르기로 가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국민의 정신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도 지식인들이 숭수범하여 올바른 사고로 나아가야 한다. 가까운 나라의 일본인들은 9년 실수를 해도 한번 잘한 것을 칭찬 격려해 준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아홉 번 잘해도 한 번의 실수(?) 혹은 자신과 다른 길을 가면 공파를 따지지 아니하고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처벌하는 것을 본다.

올바른 견해는 그 민족성을 바르게 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또 많은 실수도 하였다. 그 중 휴전협정 장애가 된다고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재가를 위한 에버-레디(Ever-ready) 비밀작전 같은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반공을 최우선해서 나라를 건국하고 한미 동맹의 조약 을 마련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나. 가장 가난하고 그야말로 불쌍한 나라를 잘살아보자고 하며 한강의 기적으로 세제도 놀랄만한 경제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 전 대통령도 정치 이념에 매달려 그 이름조차 지우려는 대한민국 건국의 논쟁은 끝이 없어 보인다.

사실상 대한민국 역사의 주류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라를 지켜온 주권자인 국민의 보편타당한 정신과 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이상 우리를 낮출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역량을 가져야 한다.

홍성제일장로교회, 내포2성전 건축기공식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에 소재한 홍성제일장로교회(담임목사 오종설)는 8일 오후 4시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954번지 내포 신도시에 대지 514평의 부지에서 본당 재건축 및 내포 제2성전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다.

기공식에 앞서 현숙 피택장로의 인도로 명봉관 장로가 기도를, 조봉천 목사의 성경 봉독, 최두은 목사가 성전을 짓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담임 오종설 목사는 “주님께 영광, 홍성과 내포의 복음화, 충남의 성시화를 위한, 민족과 세계에 열방을 품는 주님의 몸 되신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이제 홍성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는 이 예배

당을 건축할 책임과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입재하실 홍성제일장로교회 본당 재건축 및 내포 제2성전 건축이 기공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이라며 건축 기공을 선언했다.

이어 김동규 집사(건축위원장)가 건축준비경과보고를 했고, 이시홍 장로(창시건축사)와 김중혁 목사(예영CM대표)가 설계 및 건축과정을 소개했다. 건축을 위한 축

복기도는 이교회 목사(환리교회)가 했으며, 격려사는 안세환 목사(홍덕교회)와 김경태 목사(내포중심성결교회)가 담당했다.

이날 김준민 어린이는 축하의 글을 낭독하고 “교회가 지어지면 내포초등학교 친구들을 다 전도하겠다. 5년 후에는 새벽기도회에서 반주를 하고 싶다.”고 말해 성도들의 박수를 받았다.

오종설 목사는 붓으로 “새로운 30년, 주님의 영광”이라는 글씨를 썼다. 건축 완공 후 교회에 전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종설 담임목사 내외를 비롯한 예배와 예식 순서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했다. 건축시삽은 오 목사 내외와 유치부, 어린이교회학교, 전체 성도들이 담당했다. 마지막으로 최현목 목사(천복제일침례교회)가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오 목사는 본당 재건축과 함께 내포 제2성전을 아름답게 완공해 성시화운동을 통한 연합운동과 지역 선교를 위해 더욱 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충남 도청이 들어서 있는 내포 신도시에 세워지는 내포 2성전이 완공되면 충남 성시화운동의 센터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부활절 감사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보수)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딤후 2:8)

총신대 이사장

총신대 학장

총회장

목회대학원장



이규필 목사



윤석철 목사



강대일 목사



서동기 목사



정호석 목사 (사랑교회)



윤웅섭 목사 (한빛교회)



임상국 목사 (천복복교회)



주지랑 목사 (사천대교회)



서재식 목사 (동성교회)



김주현 목사 (빌라델비아교회)



송인석 장로 (양문교회)



이전수 장로 (천복교회)

합동보수교단은 뜻을 같이 할 교회와 기관, 교단 가입을 환영합니다.



총 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 (가산동 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FAX 496-0181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이규필 목사

부활절 메시지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 총회장 허창범 목사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에서 일어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

1.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굳게 가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믿음을 견지하고 고수함으로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도 극복하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피 뚫은 복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근본 이유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고 본질적 사명을 자각하고 이 사명 다하도록 다짐하는 부활절이 되어야 하셨습니다.

3.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은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위하여 내 옛사람, 옛 본성, 옛 품성, 옛 생활, 옛 정욕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였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부활 되어 부활의 삶과 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한국민족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사, 감격과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본사 사장)



할렐루야!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가슴 뛰게 합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맞섰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바울도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고전 15:13~14).”

사도바울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박해자에서 교회를 위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행 9:1-6). 또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겁을 먹고 낙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용감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물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단지 죽어서 죽음에 머무셨다면 이는 그분의 화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였다면, 믿는 자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그들은 죽음 후에도 죽은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고전 15:16-19).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을 이기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셔서 역사 속에서 살아나셨고 분명히 역사 속에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은 모든 우주적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이 아달로 기독교 역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임을 기억하고 오늘 그 믿음에서 이탈되지 않는 기도와 순종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58).

부활의 신앙을 가지자

한국경목총회 총회장 이창식 목사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있다. 참된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요 11장 24~26절

1. 부활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니라” 무덤에 찾아

갔던 여자들에게 천사가 한 말입니다. 성도는 죽을 이 후에 천국이 있고, 천국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말된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할 당시 너무나 힘들어 지쳐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는 물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느냐고? 그 아내는 루터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루터는 깨닫고 더욱 개혁을 부르짖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인 부활, 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2. 부활의 신앙은 뜨거운 신앙입니다.

한국 식탁에 콩나물이 오르듯 서양 식탁에 브로콜리가 오른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다. 어느 식당에 들어간 부시는 웨이터에게 음식에서 브로콜리를 빼달라고 주문했다. 곧바로 ‘대통령이 브로콜리를 싫어한다’는 소문이 났고 당장 다음 날부터 브로콜리 판매량이 급감했다. 우리 같은 농민들이 데보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농민들은 브로콜리를 트럭에 싣고 이런 글을 써서 백악관에 선물했다. ‘부시는 브로콜리를 싫어했던 게 아니라 아마 너무 많이 먹어서였을 것이다.’ 이 사건이 다시 매스컴에 보도됐고 부시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때 브로콜리를 너무 많이 먹어 잠시 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은 급기야 브로콜리를 외국에 수출하는 전 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쫓겨듯 바쁜 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충분히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다. 이 여유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유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인 것입니다.

3. 부활의 신앙은 순교의 신앙입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행 4:18 그들을 불러 명령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 행 4:19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행 4:20 이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메 히 11:37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 다니며,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였으니 히 11:38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땅굴과 동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인생 썩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불타기를 원합니다. 순교의 정신이 없는 신앙은 참 부활의 신앙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았다 하든 이틀은 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신앙이 됩시다. 이것이 참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이 되자

예장합동보수 총회장 강대일 목사



(마 28:1-10) 마 28:6절에 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음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부활의

증인들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1. 천사들의 증언

마 28:5-6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살아 나셨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고 있다. 이 여인들은 무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감격스런 모습이다

2. 여인들의 증언

마 28:7-8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보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컬었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아멘

이 사실을 목격한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했다. 요 20:1를 보면 여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황급히 달려가서 전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경험한 사람들은 증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예수님의 자증

마 28:9-10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 주시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이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었는가? 부활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겠다. 아멘

부활절 메시지

(사)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



주님의 부활을 한국기독교 보수교단 총연합회 (이하-한보총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산하교단 성도와 함께 축하합니다.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은 만물이 새롭게 생동하는 새봄과 함께 생명의 신비

함과 풍성함으로 온 세상을 밝혀 주었습니다. 이로 인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그리스도는 안 식후 첫날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20:19)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이 따뜻한 한마디의 말씀은 사랑하는 주님을 잃고 실의와 절망과 좌절, 슬픔과 고통 속에 잠겨 있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과 소망을 담아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 당면해 있는 경제와 민생 안보 불안 등의 문제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을 처절한 좌절과 고통의 몸부림 속으로 불안과 불신 가운데 갈광질광하고 꿈과 소망을 잃고 방황하며 삶의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 갇혀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온통 절망으로 가득해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기쁨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줍니다.

평화는 죽음과 사랑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입술로만 평화를 외치고 사랑을 노래하며 말로만 부활을 증거해서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그 십자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껴질 때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천년 전 주님의 부활을 통해 초대교회는 절망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침체되어지고 퇴색해져 가는 이 시대지만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부활의 각성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하나의 기적과 같은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놀라운 기적이 함께 할 것을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과 교회위에 부활의 기적과 부활의 평강이 믿음과 소망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과 함께 기쁨과 참소망으로 온 교회와 우리 안에 강물같이 흘러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
부
활

예수 다시 사셨네~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이시경: 허창범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자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동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ltpress@hanmail.net / jltvcpj@naver.com
▶전화 : 전화: 032)574-6574, 팩스: 032)672-3031
▶H.P : 010-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2019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

일시 | 2019년 4월 21일(주일) 오후 3시

장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국 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회장 이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현역사 이영호 목사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설교 권명구 목사
기독교대한장로회 감독회장



예배인도 김성복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장



특별기도 박종철 목사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성찬예식 윤성원 목사
기독교대한장로회 총회장



선언문 이주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대신) 총회장



축도 김형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준비위원장 김진호 목사
기독교대한성령교회 총무



사무총장 최우식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무



주최 : 한국 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대치동)
TEL 02-559-5614 FAX 02-568-7456 E-mail kcc6215@daum.net

부활의
로 생명을
본 세계에

예수와 함께 민족과 함께

주제 성경 : 요한복음 11:25-27 / 주제 찬송 : 할렐루야 우리예수(161장)

한국기독교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강력 규탄

현재의 결정 용납할 수 없다. 낙태죄 폐지는 절대 안 돼

한국교회연회 대표 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연회 대표 유만석 목사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시대가 변하고,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지만, 우리는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는 절대 반대한다. 이제 현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이 뻔하다.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우리 사회는 어떠한지,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있는 종교계가 더 큰 짐을 떠안은 것 같다. 앞으로도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현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강력히 규탄하며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성명서를 냈다. 한기총은 현재의 판단에 강력히 규탄할 뿐 아니라 절대 반대하며, 현재의 결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태아와 생명에 대해서 전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면서 생명의 존엄이 헌법에 제대로 명시되어야 하며 생명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임을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공협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또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강력히 비판했다. 대표회장 소 목사는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0.9퍼센트대로 감소한 상황에서 낙태로 인한 출산을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간통죄 폐지에 이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더욱 더 성경적 생명윤리와 성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기독교인들이 우리 사회의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현재의 이같은 결정에 무척 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며 이는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만들어진 법이 임태한 생명을 이토록 처참하게 유린해온다고 비난하며 그 법은 인간 생명 존중이 아닌 한낱 인간의 사악한 이기심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권 대표회장은 또한 우리는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고귀한 인간 생명이 보호되기는커녕 함부로 말살되도록 허용한 현재의 이번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함께 앞으로 벌어질 우리 사회의 부도덕한 생명 윤리의 파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개탄한다고 밝혔다.

한교총 대표회장 1 이승희 목사 2 박종철 목사 3 김성복 목사



또한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목사는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헌법 제269조와 제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보고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번 현재의 판결은 이 시대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오만한 판단임을 지적한다고 했다.



또한 모든 생명을 저할 수 없다고 존귀하다. 특히 사람의 생명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모태의 생명과 연관된 상태가 아닌 이상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태아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무지이자 권력의 남용이다. 잘못된 기준과 판단이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보호하고 함

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생명과 존재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 유남석 소장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96조 1항과 제270조 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의 결정이 있기 전, 기독교를 비롯한 천주교 등 종교계와 생명을 존중하는 시민단체 등이 낙태죄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헌법재판관들의 결정과 이것이 시행됨으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사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현재 유 소장은 또 이제 현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은 뻔하다면서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며 우리 사회는 어떠한지,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있는 종교계가 더 큰 짐을 떠안은 것 같다. 앞으로도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기도의 능력 회복의 역사 “서로 사랑하라”

제68회 국가기도의날, 5월 2일 미 전역에서 연합기도



미국에서는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이 되면 미국 전 지역에 걸쳐서 동시에 미국의 안위와 회복을 위해 기도회를 갖는다. 같은 날, 이곳 한인 커뮤니티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기도회를 개최한다. 특별히 한인 커뮤니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조국의 안위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올해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Love One Another)이다. 기도회는 미국을 위한

기도, 미국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미국 전국 초기부터 정해진 ‘국가기도의날’(National Day of Prayer)은 아브라함 링컨과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확산되었고,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이 5월 첫 번째 목요일을 연방정부가 기도의 날로 정한 이래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가적인 기도회이다.

국가 기도회를 알리는 기자회견이 지난 27일(화) 오전 11시 나성순복음교회 EM 예배실에서 열렸다. 이번 기도회를 공동주최하는 남가주 교계 단체장 및 공동주관자인 미주성서화운본부(공동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와 나성순복음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성우 목사(미주성서화운본부장) 인도로 김근수 목사(OC

한인목사회 회장)가 대표기도하고 한기총 목사(남가주 교협 회장)가 환영과 취지를 설명한 후 김시은 목사(미주성서화운본부)가 동영상을 통해 설명하면서 ‘국가기도의날’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진유철 목사가 메시지 선포, 송정명 목사 인도로 ‘국가기도의날’ 준비를 위한 합심기도, 김관진 목사(남가주 한인목사회 회장)가 식사기도 후 나성순복음교회 측에서 준비한 오찬을 나누며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는 ‘국가기도의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기총 목사는 기도회의 환영과 취지 설명을 통해 “미국사회의 저력은 기도의 힘에서 비롯됐다.”며 “이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열매맺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유철 목사는 에베소서 6

장 18절 성경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려면 기도해야 한다.”며 “영적전쟁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기도이다. 그리고 서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 그 힘은 더욱 강력해진다. ‘국가기도의날’을 통한 합심기도가 미국과 한국을 살리는 영적 능력으로 나타날 바란다.”고 전했다. 이성우 목사는 이번 기도회부터 개최 장소 교회(단체)도 공동주관처로 함께 섬기게 되며, 장로를 비롯한 평신도도 기도인도자로 참여시킬 계획인데 기도 인도자는 각 단체로부터 2명의 인도자를 추천받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쟁터가 된 산불 현장...



강원 고성과 속초 강능에 이르러까지 산불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하룻밤 사이에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잿더미가 된 곳곳에서 깊은 탄식과 한숨이 흘러나왔으며 급기야 정부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여의도 크기에 맞먹는 산림과 건물, 주택, 자동차, 생명까지 앗아간 이번 산불로 1명이 사망하고, 주택이 40여 동과 창고와 비닐하우스 11동 소실되었으며, 주민 4천여 명이 인근 교회와 학교 등으로 긴급 대피한 상황이다. 불에 완전히 타서 무너진 건물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 폐허가 되어버린 폐차장...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처참한 모습이다. 게다가 고성군 토성면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당시 집 400여 채 이상이 전소되었으며 주민 500여 명이 4개 학교에 임시 대피소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고성군과 속초시 경계에 있는 장천마을의 경우 마을이 모두 전소되었고, 마을 주민들은 몸만 빠져나온 상황이며, 따뜻한 하루는 실외와 고온에 빠진 강원고성과 속초 강능 등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여 최대한 빨리 임시 대피소가

지정되어 전국에서 구호 물품이 전달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화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강원도민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경감을 빈다며 한미음으로 기도하며 복구에 참여하자며 긴급성명을 했다. 이어 사)한국교회총연합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대표회장은 긴급 성명서를 내고 강원도민 돕기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어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교연 등 많은 단체와 기관들이 성명서를 내고 기도하며 강원도민을 돕는데 힘을 쓸 것을 주문했다.



축
부
활

2019.부활절감사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노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딤후 2:8)

주제 :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계 1:3절)

총회장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서기



박민규 목사
(천성교회)

부서기



전상현 목사
(새예루살렘교회)

회의록서기



김은임 목사
(감사교회)

부회록서기



유순옥 목사
(조예교정선교회)

회계



김정미 목사
(새예루살렘교회)

부회계



김진환 목사
(주사랑교회)

총무



정요한 목사
(꿈의교회)



예장진리총회는 뜻을 같이할 개 교회 및 노회와 각 교단 가입을 적극 환영합니다.



총회사무실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내손동) Tel 031)424-7612
총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 박민규 목사 H.P 010-9621-9627

■ 靑松 건강칼럼 (686) 고령화와 통합의료

Better Health for All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019년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제44회 보건종합학술대회를 <Better Health for All: Aging & Integrated Care>를 주제로 4월 5-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개최했다. 서울 의대 강당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박병주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협회 명예회장 권이혁 박사(서울대 총장, 문교부·보건사회부·환경처 장관 역임), 신찬수 서울대 의대 학장,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이 축사를 했다.

대한보건협회(Korea Public Health Association)는 보건분야 24개 회원학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는 11개 회원학회가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공중보건분야 중요한 과제를 가운데 미세먼지, 금연, 중독, 환자안전, 의료기술평가, 빅데이터 활용, 보건교육사 역할 등에 관하여 학회별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보건교육사회, 중독포럼 등도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필자는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으로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4월 5일 오전 Plenary Session는 <고령화와 통합의료>를 주제로 일본의 하세가와 교수(Prof. Tomonori Hasegawa of Toho University), 홍콩의 유엔 교수(Prof. Peter P. Yuen of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싱가포르의 푸아 교수(Prof. Kai Hong Pua of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그리고 우리나라 한동은 교수(Prof. Dongwoon Han of Hanyang University) 등 보건정책 전문가들이 국가별로 고령화에 따른 보건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4월 6일 오전 Plenary Session는 <임종기 돌봄과 연명의료>를 주제로 대한노인병학회장 박현욱 박사가 '임종 돌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허대석 교수가 '연명의료' 그리고 정현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죽음은 소별인가, 옮겨감인가?'를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2월 4일부터 '웰다잉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고, 연명치료 진행여부를 결정하는데 환자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강연을 경청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사회발전과 더불어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세계 장수국(長壽國) 10위권 이내로 진입했다. 세계보건기



靑松 박명배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구(WHO)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6년 태어난 아기의 기대 수명(平均壽命)을 기준으로 할 때 82.7세로 세계 9위에 올라 전년 12위에서 3단계 상승했다. 조사 대상 183개국 중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84.2세이다.

성별로 나눠보면, 여성의 기대 수명은 85.6세로 일본(87.1세), 스페인(85.7세), 프랑스(85.7세)에 이어 세계 4위이다. 한편 남성은 79.5세로 19위에 머물러 남녀 간 수명 차이가 6.1세로 다른 장수국에 비해 큰 편이다. 이는 한국인 남성이 여성보다 암, 알코올 관련 질환, 자살, 교통사고 등 사망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질병이나 부상 및 사고 없이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건강수명(健康壽命)은 남성이 70.7세, 여성은 75.1세로 남녀 합친 건강수명은 73세로 조사됐다. 이는 기대 수명까지 남성은 평균 8.8년, 여성은 10.5년을 아픈 채 노후를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건강수명이 여전히 낮고, 저출산과 고령화를 비롯한 자살, 치매, 건강 불평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우리나라 치매(癡?) 인구는 5년 후면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치매 환자와 공존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뉴오렌지 플랜'은 치매 환자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 일본 치매 환자들은 가족, 친구들과 만나고, 경제활동(배달, 세차 등)을 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에 수반되는 의료비의 급증과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해 평소 거주하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

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등 전국 8개 기초단체가 6월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발인다.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어설 즈음인 2000년대 초반부터 고령자(高齢者)가 거주지에서 그대로 지내면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는 '지역 포괄케어'를 시작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병원과 시설 중심으로 이뤄지던 의료·복지 서비스가 환자와 고령자 집과 동네로 옮겨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도입하려는 '커뮤니티 케어'도 일본형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로병사(生老病死) 과정을 거쳐 죽음에 직면한다. 사망자의 약 70%는 질환에 의해 사망하며 약 30%는 급사(急死)한다. 좋은 죽음(Good Death)이란 존경과 존엄성을 가진 한 개인으로 대해지는 것, 통증이나 다른 증상에서 해방되는 것, 친근한 환경 안에 있는 것,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있는 것 등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는 약 74.6%(암 사망자는 90.6%)에 이른다.

주요국가 사망자의 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비율은 네덜란드 29.1%, 스웨덴 42%, 미국 43%, 영국 49.1%, 프랑스 57% 등이며, 일본은 75.8%로 비교적 높다. 생명관련 '삶의 질' 국가 순위는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안도라, 영국, 핀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등이며, 우리나라는 35위이다.

임종기(臨終期)란 환자가 회생(回生)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급성 및 만성 질환의 경우, 임종기는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수 일 내지 수 주 내에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고 사망이 예상되어 환자와 가족과 임종돌봄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이다.

말기 환자(末期患者)가 의사의 말기 통보를 거부하면 무의미한 연명의료(延命醫療)로 고통 속에서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게 된다. 그러나 말기 통보를 수용하면 좋은 추억 만들기, 가족 및 친지들과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갖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임종시 할 일은 따뜻한 부드러운 스킨십과 이야기, 좋아하는 음악 들려주기, 가족과 함께 용서 화해 사랑의 시간, 마지막 인사하면서 이별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좋은 죽음(Good Death)이란 미국인은 '통증으로부터 해방' '영적인 평화' '가족과 함께 있는 것' '정신적인 각성' 등을 꼽았다. 영국인은 '익숙한 환경' '존엄과 존경 유지' '희망하는 곳에서 임종'

'의료진과 좋은 관계' 등을 좋은 죽음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일본인은 좋은 죽음을 '신체 및 심리적 편안함' '희망하는 곳에서 임종' '의료진과 좋은 관계' '희망과 기쁨 유지'라고 생각한다.

로마 공화정 시대의 탁월한 정치가이며 웅변가,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키케로(Marcus Cicero, B.C. 106-43)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이다"라고 했다. 키케로는 저서 '노년에 대하여'에서 "나이를 먹어서 누릴 수 없게 되는 즐거움은 더 고차적이고 세련된 즐거움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송나라 주익(朱熹, 자:新仲, 1097-1167)은 세시오계(歲時五計)에서 5가지 계획을 잘 준비해야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삶에 대한 생계(生計), 몸체에 대한 신체(身計), 가정에 대한 가계(家計), 나이 들에 대한 노계(老計), 죽음에 대한 사계(死計) 등이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죽음학'을 강의하는 셸리 케이건(Shelly Kagan) 교수는 사람들이 죽음을 회피하는 이유로 4가지를 꼽았다. 즉, 누구나 죽는다는 죽음의 필연성, 얼마나 살지 모른다는 죽음의 가변성,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편재성이다. 케이건 교수는 이 네가지 이유 중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이 죽음을 회피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반응은 무관심과 부정, 회피, 혐오인 경우가 많다. 이에 평소 죽음에 관해 완전히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본인이나 가족, 주변인의 죽음이 닥치면 당황해 한다. 고려대학교는 작년 3월 '죽음교육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죽음학'을 연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죽음학(thanatology)은 죽음의 원인, 조건, 이론 등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며, 이 용어는 고대 그리스어로 죽음의 구현을 뜻하는 타나토스(Thanatos)로부터 나온 것이다.

죽음교육(death education, 죽음의 준비교육)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교육이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여러 대학에서 죽음교육(죽음의 사회화)을 해 왔다. 죽음도 삶처럼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므로 노년기(老年期)를 위시하여 유년기, 청소년기에도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늙기를 싫어하고 더욱이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음을 향해 나아가고 죽음으로 접근해 가고 있다. Memento Mori(Remember you must die.), 죽음을 기억하라! 낚은 생(生)이 더욱 농밀(濃密)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든 무엇을 할까'에 관하여 매일 성찰하면서 생활해야 한다.

헤로인 중독성 마약이란?

(지난호에 이어)

폐와 심장질환의 변화: ▶폐의 염증, 기침 ▶심장과 폐순상 ▶폐암발병 증가 ▶면역력 약화, 감기, 독감,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증가

소화기 계통과 생식기 체계의 변화: ▶식욕 증가, 그로인한 체중증가 ▶임신부에게 있어서 사산과 태아기형의 증가 ▶호르몬 수치변화, 그로인한 심대의 정성적 성장발육의 영향 ▶여성에게 있어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증가로 인한 불임증의 위험 ▶남성에게 있어서, 정자수와 테스토스테론의 감소

정신적/감정적 건강의 위험: 마리화나 사용자들은 느린 반사작용을 경험하게 되고 갑작스런 불안감과 과대망상증 즉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합리한 혹은 뚜렷한 의심을 갖게 된다. 사용자는 어지러움 증을 느끼고, 걷는데 어려움을 갖고, 방금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반대로 단기기억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문제점들이 발견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종종 왜곡된 지각력, 협조체계의 상실,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력의 어려움을 겪는다.

성장 발달의 위험: 십대들에게 마리화나는 생식기관에 대한 유체적 위험에 빠지게 한다. 남자들의 정기적 사용은 정자생산을 억제하고 테스토스테론, 즉 변성, 체모의 발달, 넓어진 어깨 같은 성인 남성의 특징을 형성하는 호르몬의 수치를 낮춘다. 여성 사용자들은 반대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원치 않는 수염이 나고 불임을 하게 된다.

마약 영향권 안에 운전으로 인한 결과와 위험: 마리화나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마리화나를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과 똑같은 상태의 어려움, 즉 거리감각 장애, 손상된 판단력, 그리고 느린 반사작용으로 인해 위험해 질 수 있다. 마리화나를 포함한 다른 마약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할 때의 벌금과 법적결과는 엄격하다. 그 법적결과는 운전자격증 정지, 벌금 그리고 종종 감옥생활을 할 수도 있다. 운전자격증이 회복될 때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 마약과 연관된 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이 있었다면 마약한 운전자는 심각한 법적실형에 직면할 수 있다.

흡입제들: 흡입제들은 냄새를 코로들이 마시거나 흡입으로 인해 향정신성 효과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대부분의 흡입제들은 즉시 뇌로 올라가서 뇌세포를 죽이거나 손상을 입혀서 결코 회복할 없도록 만든다. 흡입제들은 접착제, 스프레이 페인트, 개솔린, 니스 같은 용제나 에어로솔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들은 또한 의학사용으로 쓰이는 질산염이나 일산화질소를 포함하고 있다. 모든 흡입제들은 극도로 위험하고 많은 것들이 독극물로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결코 인체에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영구한 신경체계와 뇌손상의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흡입제들은 중앙신경계통을 진정시키고(최악하게 하고) 흐리멍덩한 눈빛, 분명치 않은 언어 표현력과 손상된 판단력을 갖게 한다. 흡입제 사용자가 에어로솔 강통으로부터 냄새를 흡입하거나 코로들이 마시면 질식으로 인한 죽음 혹은 심장 박동 수의 증가로 인한 심장마비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 원인이 된다.

남성호르몬 동화작용제 스테로이드: 남성호르몬 동화작용제 스테로이드는 남성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유사한 합성물질이다. anabolic은 근육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androgenic은 증가된 남성의 특징을 뜻한다. 의사의 처방대로 사용될 때 이 물질들은 만성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근육을 만드는 것을 돕는다. 스테로이드 사용은 불쾌의 감정과 과대망상증으로 기인한 감정의 변화, 손상된 판단력을 일으킬 수 있다.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다른 건강문제는 남성 정자수의 손실을 가져온다.

(다음호에 계속)

죽 부 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대안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표어: 좋은만남 행복만성도(신 33:29절)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여목성장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위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쭈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고 고침
- ☆ 김소영: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으로 고침받음
- ☆ 남영수: 재생불량성빈혈 경제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예배 시간 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세례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부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시 동구 송림로 16길 11(신현동)

동대구 반도유보라 양가(2층)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신 입 생 모 집 요 강



김창숙 목사

-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학술원 학장명의로 졸업장 수여 함.
- ◆ 과정수료 후 세계로신학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찬양, 율동, 위임, 한국무용 수업요일:매주 월,수,금
장 소: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문의: H/P 010-4137-0796(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학술원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대안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표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당회장 정대성 목사

2019 표어
성장하는교회
부흥하는교회

-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새벽 5:30
 -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매일 오후 8:00
 - 토요직분자교육: 오후 7:00
 - 청년/학생부: 통합예배
 - 수요 예배: 오후 7:30
 -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담임목사 김창통



상담목사 박영미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GD FC
GOD DESIGN FELLOWSHIP CHURCH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fc.kr

사)한기보협, 제9회 미스바 회개 기도회 및 세미나 가져

한국교회의 성도들, 표준 이단분별 가이드라인 정해 강력 퇴치해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에서 지난 3월 26일(화) 오전 11시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17길, 본부 비전센터에서 1부 예배, 2부 이단사이비 대책 세미나, 3부 제9회 미스바 회개 기도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1부 예배는 법인이자 김영호 목사가 진행을 맡았으며, 배정희 목사(예복 부흥신학이사)가 기도, 성경봉독(요 5:48)에 문해숙 목사(예장(보수연합)총회), 특송에 강현주 찬양사역자, 현금기도 김 건 목사(예장(합동제일)총무), 예장(진리)총회 총회장 장한국 목사의 축도 순으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날 설교에 나선 박영호 목사는 마 5:48절을 중심으로 "연약도와 신격화 신학"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박영호 목사는 연약도(1643-1723)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들로 임마누엘 신학과 신격화 신학을 강조했다. 신격화 신학(apotheosis)은 성령의 임재와 사역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은사로 구원 서정의 중생과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신학을 말한다.

신격화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참여하여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삼위 하나님의 불멸 생명을 나누어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라"(엡 4:13)까지 달아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되어 가는 존재이다. 그러면서 1. 신격화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2. 신격화는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이다. 3. 오직 하나님께서 신격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4. 신격화는 삼위일체적이다. 5. 성육신-신격화 공식은 중요하다. 6. 신격화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합당한 관계와 관련된다. 7. 신격화 교리는 실천적이며 더욱 구체적으로 실천적이다. 8. 신격화는 종말론적이다. 위의 8가지의 강의를 인터넷방송 JTNTV 및 CPJ방송을 통하여 자세히 들을 수 있다. (http://jntv.kr) 또는 http://cpj.kr 동영상 통해 자세히 시청할 수 있다.

2부 이단사이비 대책 세미나에서 강사 김철웅 목사는 강의안을 제공하고 강의를 시작했다. 김 목사는 "표준 이단분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단 대책 패러다

임의 전환- 10가지의 제목으로 열변을 토했다. 각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물론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내용들이다. 김철웅 목사의 강의가 역시 (http://jntv.kr) 또는 http://cpj.kr에서 동영상을 통해 자세히 시청할 수 있으며 많은 분들이 듣고 배워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이날 한기보협 비전센터에서 열린 제9회 미스바 회개 기도회는 법인이자 공동회장 이의근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중무지회장 진광열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각 교단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단에 대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단 사이비 집단을 퇴치하는 데 유익했다며 이를 계기로 본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며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는 데 힘써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마르투스부흥협의회 대표회장 및 임직원 위촉식 가져

고충진 목사, "일곱 촛대와 일곱별" 말씀선포 해

마르투스부흥협의회(대표회장 고승곤 목사)는 지난 25일(월) 오전 11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낮은교회(담임목사 고정순)에서 본 협의회 대표회장 및 임직원 위촉 감사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났다.

대표회장 고승곤 목사 인도로 예배가 진행되어 안효근 목사가 기도, 국민일보 국민비전부흥사업협의회 실무총재 고충진 목사는 요한계시록 1:19~20절을 본문으로 "일곱 촛대와 일곱별"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고, 이어 홍혜선 목사가 불행기도를, 축사에 김인순 목사, 광고 임영성 목사, 고충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마르투스부흥협의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대표회장 고승곤 목사(바울교회), △강사단장 임영성 목사(주님의교회) △서기 심진주 목사(주기쁨교회) △회계 홍혜선 목사(바울교회) △상임회장 고정순 목사(낮은교회) △실무회장 장예스터 목사(샘솟는교회) △실무회장 김하은 목



사(에스리수양관) 등이다.

대표회장 고승곤 목사 프로필

다바르(Dabar) 성경연구원장, 마르투스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국제이주자선 교포연 연구위원, 국제선교재단 실무회장, 한국기독교영성운동총연합 실무회장, 세계복음화운동본부 상임본부장, 국민비전부흥사업협의회 상임부회장, 세계로열린 축복방송 선교총재 등을 맡고 있으며 저서는 1권 하나님(God) 나라의 비밀, 2권 하나님(God)의 손 안에 등이 있다.

또한 대표회장 고승곤 목사는 마르투

스(martus)는 히브리어로 '소생시키다'는 뜻으로서 주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겠다는 소명감을 갖고 사역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 부흥사 양성, 신앙교육, 영성훈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마르투스부흥협의회는 오는 4월 18일 오후 7시 30분부터 21일까지 상임회장 고정순 목사(낮은교회)에서 신유 특별성회를 갖는다. 대표회장 고승곤 목사, 상임회장 고정순 목사, 회계 홍혜선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선다.

한교총 평화통일위원회, DMZ 손잡기 참여 독려

"4월 27일(토) 교회별 소풍가는 기쁨으로 참여해 달라."

한국교회총연합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윤마태 목사, 찬양서부교회 담임)는 4월 27일 진행되는 "DMZ민(民) 평화 손잡기" 행사에 참가한다. 지난해 4월 27일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여 민간 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DMZ 손잡기 행사는 비무장지대 둘레길 500킬로미터를 50만 명의 국민들이 손을 잡고 띠를 연결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로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윤마태 목사는 "이번 손잡기 행사는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아니라 진영논리에 따른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면서, "분단 70년을 넘긴 민족 분단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평화의 몸부림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목사는 "이번 행사의 취지는 투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 교회별로 소풍가는 마음으로 기관별, 가족별로 참여해주시면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몸으로 체험하며, 기도를 모으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후 1시까지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북삼교 옆에 마련된 임시 주차장에 도착하면 주최측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02)744-6200



축 2019 부활절

대한예수교 장로회 번성교회

2019 번성표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교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

예/배/시/간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저녁 7:30
금요부흥집회 저녁 7:30
새벽 기도회 새벽 5:00

담임목사 박정균
Rev(D.Min) Park Jeong Kyun

대전광역시 서구 34(갈마동 336-22)
☎교회: 042)523-3191 FAX: 042)523-3090 Email: jk2863@hanmail.net

지저스 JTNTV 대구에서 이사회 열어

JTNTV 지저스타임즈(이사장 허창범 목사)는 대구 행복샘교회(박수영 목사)에서 지난 3월 22일(금) 오전 11시 이사회 및 언론부흥사업협의회 월례회를 갖는 등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국내의 지사 및 MOU를 체결한 해외 신문방송을 위하여, 문서선교를 통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사무총장)의 인도로 시작되어 세종시 열두광주리교회 원장 김경호 목사(세종지사 및 본사 상임이사)의 기도, 꾸미오리 김창숙 목사(운영이사/실무회장)의 위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논설위원 최순길 목사는 요 12:24~25절을 중심으로 말씀 선포했다.

이어 운영이사/실무회장 임찬미 목사가 현금기도, 상임이사 임요한 목사, 상임이사 이선한 목사가 각각 축사를,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의 인사 및 전국 지사장, 임원들, 순서를 맡은 언론 관계자를 소개하고, 대표회장 광영민 목사의 광



고가 있었다.

특별기도 순서로 ①신문 본사 & JTNTV, CPJ방송 운영을 위하여, ②국내의 문서선교를 위하여, ③본사와 MOU를 체결한 교단과 해외방송사들을 위하여, ④이사장, 사장, 이사, 기자, 설기는 교회에 위하여, ⑤국가의 안녕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⑥장소를 제공한 행복샘교회

와 담임 박수영 목사를 위한 기도회를 끝으로 부이사장/부총재 정대성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 및 기도회를 마쳤다.

2부 이사회는 이사장 허창범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가 급한 개인 사정에 의하여 위임한 관계로 모든 안건은 차기 모임에서 다루기로 하지는 이사들의 긴급회의로 회무를 주기도문을 끝으로 마무리 했다.

- 축 부활 -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 셧나이다.(시 30:11)

예/배/안/내

대 예 배 1부: 오전 9시30분, 2부: 오전 11시
주일저녁 오후 7시, 유치부 오전 11시

수 요 예 배 수요일예배 오후 8시
금요철야예배 금요일 오후 10시

주일 예 배 주일학교 오전 11시
청년·대학부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30분

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10시

심 야 기도회 매일오후 10시(단, 주일과 수요일은 제외)



담임목사 소진우
PASTOR SO JIN WOO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TV 가정예배 칼럼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H.P : 010-8753-7179
교회 : (02)934-1232(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교회 :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장암동)
☎ : (02)934-1232

계시록 6장 강해(45)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 십사만 사천 명을 통해 다시 예언을
후 3년 반에는 교인들을 인도할 인도자가 없는 암흑시대 도래

〈지난호에 이어서...〉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그때그때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또 그분은 전능자요, 능력자이시다. 어떤 순간에 확실히 모든 '구원될지'를 '하시며', 말씀 한마디로 다 구원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유의 지까지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성장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마치 어린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다시 일어나 걸으며 성장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초보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성막 제도 속에 만들어 놓으셨다. 이 얼마나 사람이 크신 배려인가.

구약의 성막은 장차 구원자의 그림자

그러나 구약의 성막은 장차 올 구원자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단번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참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법을 주신 것이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히 10:1)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는 마귀들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막을 세우시고 세상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성막의 회막문부터 시작하여 한 단계, 한 단계 거쳐 들어오도록 하신 것이다.

첫 번째 회막문 단계(Calling, 하나님의 부르심 -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유혹과 타락과 고통의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입구(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첫 번째 통로이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배 순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첫 번째 예배의식이 된 것이다.

장한국 목사

주시랑교회 담임
예정진리총회 총회장

여섯째 인을 뿜 때 그 안에 자신이 왜 없었나? 이는 여섯째 인을 뿜기 이전에 벌써 자기는 순교당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이 땅을 보니 어린양이 여섯째 인을 뿜어서 하나님과 어린양의 진노가 퍼부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은 후 3년 반에 들어 올 총론적인 사건을 계시합니다.

왜 우리에게 후 3년 반에 될 일들을 알려주시나요? 여기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 3년 반이 끝나고 이어서 후 3년 반에 될 전체적 사건을 '큰 지진' 이 난다고 표현했습니다. 지진은 무너지는 것을 계시합니다. 무너지는 것이 무너지나요? 후 3년 반에 들어간 교인들이 세상에 쌓아 놓은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눌러 붙게 한 마음속의 미련까지 전부 무너지게 될 것을 계시합니다.

여섯째 인을 뿜 때 그 속에 해당되는 교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두 번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은혜시대 때 순교자의 명부에 녹명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순교할 자의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복, 필요한 은사·능력,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육적이고 세속적인 요소를 전부 잘라버리게 하는 역사도 이루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한 자는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서 타락마당과 같은 환란 날에 직접 순교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인 십사만 사천 명을 통해서 다시 예언

두 번째는 환란 날 전 3년 반 동안 두 줄인 골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 십사만 사천 명을 통해서 다시 예언·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은혜시대 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서 순교자의 신앙에 올라서지 못했어도 환란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

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여섯째 인 개봉 시 후 3년 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예비처로 인도할 받게 됐을 것입니다.

두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깨닫고 정신 차리며 미련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길 원하면서 두 증인의 인도를 받아서 예비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 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예비처 성도들이 휴거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의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거부한 자들이 여섯째 인을 뿜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이를 큰 지진이 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해가 머리털로 짝 천갈이 겹게 되었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실제 태양이 겹게 변해서 캄캄해진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영혼의 빛인 진리가 완전히 없어져서 캄캄해진 것을 말합니다. 시 84:11에 여호와 하나님이 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햇빛을 보게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 우리 영혼이 참 빛인 진리를 받고 살아가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계 12:1에 '해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 태양을 뜻으로 입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진리가 있습니다. 환란시대에도 두 증인을 통해 증거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진리가 전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완전히 없어져서 영의 세계가 캄캄해지면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달이 피처럼 되었다는 것은 달 본연의 빛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달은 밤에 땅을 비추는 광명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에 처해 있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는 역사가 곧 달이 밤에 땅을 비추는 것입니다. 회개는 율법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시켜서 잘못된 데서 돌아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달이 어두

움에 있는 우리를 비춰서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 3년 반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양심이 없어지고 회개가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완전히 침묵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저주인가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져

13절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은 많은 사람들을 묶은 길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주의 종들이 정부 타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 3년 반에는 교인들을 인도할 인도자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슬러지고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슬러진다'는 것은 실제 하늘이 없어지거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없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를 쳐다보면 하늘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고, 그 영광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이 보이는 하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어진 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됩니다. 말씀을 믿으면 순식간에 하늘나라에 올려져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늘의 영광이 송두리째 떠나가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두루마리'는 성경을 계시합니다. 말씀(두루마리)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영광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전부 사라져 버린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신자들이 하늘나라가 보아야 되고 하늘영광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늘나라의 것을 보여주는 말씀을 주셨는데 믿지 않으므로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은혜시대 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영광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산과 섬도 제자리에서 옮겨졌다'는 것이 지각변동으로 산과 섬이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깨달아 왔듯이 영적으로

산과 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섬은 바다에서 솟구쳐 올라온 육지의 일부분입니다. 바다는 죄악의 바다를 계시합니다. 즉 복음을 듣고 죄악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성별된 자로 세우는 역사가 섬입니다.

산은 평지에서 솟아 있는 땅의 부분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진리로써 하늘에 속한 영광, 영생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섬과 진리의 산이 강그리 없어지는 때가 후 3년 반입니다. 오늘날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데 우리가 더디 믿고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날려버리면 안됩니다.

15절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부자들과 장군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서, 여섯째 불인을 뿜 때 그 속에 해당하는 자들이 불턱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육에 속한 자들과 육적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은 육에 속한 교회에서 왕같이 권력을 휘두르며 행했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반면 하늘에 속한 왕들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시공을 초월하여 하늘나라와 천년왕국을 오가며 왕 노릇합니다.

'귀족'은 땅의 왕들과 더불어 권세를 휘둘렀던 자들입니다. '부자'는 땅에 돈을 많이 쌓아둔 땅에 속한 자를 가리킵니다. '장군들'은 자기 밑에 부하를 많이 둔 자를 말합니다. 부하로 삼은 자들의 표를 모아서 총화장이 되고 교계의 지도층이 되어 권세와 명예를 누리는 자를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하늘의 대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재림하시는 주님께 붙은 자들이 하늘의 대장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내려옵니다.

'힘 있는 자'는 인간의 힘을 나타내면서 힘이 세다고 자랑하는 땅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충성하고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재계놓고 자기 힘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고 복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힘 있는 자'입니다. '꼴'은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 종노릇하는 땅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교회 안의 목회자, 장로, 집사가 사람의 비유를 맞춰서 사람의 종이 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피동적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목사코너 -210-

주시랑교회 장한국 목사
예정진리 총회장/JTNTV 부이사장

(겔6:16~19)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는 무슨 말씀인가요?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믿음의 방패 가지라. 곧 이 세상 입금이 이 세상 주관자로 역사하는 마귀인데 이와 정반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라, 특히 환란 날은 순교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라(롬12:1-2)고 하십니다. 일상각오의 믿음으로 살아야 뎡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의 불붙은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써 막 수 있으리라. 오직 주님이 주실 첫째 부활의 영광과 왜 환란을 성도에게 주시는지 잘 꿰뚫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입증하는 것, 즉 쪽으면 쪽으리라는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수욕하시기 전에 맴기세택의 제사장으로서 구원을 이루신 것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루신 구원을 가리켜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보다 더 큰일을 보리라'(요1:48-50)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신 것과 영원 속 제 구원해 주시고 성령 부어주시어 성전 되게 하심을 믿느냐? 이를 확신하면 구원의 투구를 쓴 것이지요. 또 빌2:12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는 우리 몸이 부활 될 때까지 또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릴 때까지 계속 구원해 가심을 가리킵니다. 역시 이를 믿고 확신에 거하면 구원의 투구를 쓴 것입니다.

주님은 최후로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영인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리고 스스로가 아닌 들은 것을 말씀하시리라' 이는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로 듣고 믿고 또 말씀대로 이뤄지게 하시는 역사를 하실 것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이를 증거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칼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요, 이는 성도들에게 최고최상의 공격무기요, 또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되는 것이 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기도·간구할 수 있지요. 또 이웃 성도들을 권면하며 사랑하며 함께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면 이것이 곧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 부 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담임 이규필 목사
(홍신대학 이사장)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전예희 목사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담임 조영만 목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핸드폰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망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담임 서동기 목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67번지 현대아이파크 A상가 2층
H.P : 010-3342-7302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강대일 목사
(전 동무수 총회장)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담임 임상국 목사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서재식 목사

경기도 시흥시 뱀내장터로4, 3층(신천동)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담임 고성규 목사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담임 장승현 목사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곡로 62-5(봉곡리 55-6)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심야직정기도 오후 9:00(365일)

담임 사금열 목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
새벽기도회 새벽 5시
금요침야예배 밤 9시

담임 장한국 목사
(전 주사랑교회 담임)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01호(내손동)
홈페이지 http://ji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서하나님의교회**

주일에 배 안 내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오후 8:00
금요기도회오후 9:00
2시 기도회(월-토)오후 2:00

담임 이정민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III. 성막 영성과 구원 서정의 5단계 -29-

교회 본질(구원)에 대한 예언

(지나호에 이어서...)

두 번째 성막물 단계(집중 속임 - 회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물이 발복에 차는 단계로,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살아왔던 인간이 비로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내 대신 죽어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며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가슴이 터질 듯한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통회자복하며 음부짓는 지리이다. 즉 오늘날 예배의식의 두 번째 단계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회개하는 순서가 된다.

세 번째 변제단 단계(제물 드림, 화해와 용서 - 분할)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무릎까지 차는 단계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희생제물을 불타는 변제단에 올려 죄가 완전하게 태워져 깨끗하게 됨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 장소이다. 이 변제단이 신약에 와서는 죄인들의 대표로 산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제단이 된 것이다.

네 번째 물두멍 단계(부활 - 중생 - 대표기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상태이다. 이곳은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 손과 발을 씻어 거룩한 몸과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는 장소로, 오늘날의 예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의로워진 죄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부가 되어 세마포 옷을 입고, 신앙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서로서, 공식적인 대표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오심과 임재를 기를 부으심을 간구하는 순서이다.

다섯 번째 성막 단계(성소, 지성소 - 설교와 축도)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상태이다. 자유함을 누리며 자유자재로 수영할 수 있는 성숙한 단계를 의미한다. 이곳은 성소와 지성소 물로 나뉘어졌으나 신약에 와서는 둘이 하나가 되었다. 성소는 성삼위 하나님의 성품(떡상, 금촛대, 분향단)을 보여주는 장소로, 이곳에서는 지성소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매일 떡상의 열두 떡을 새로 갈아 드리고, 금촛대에 올리브기름을 채우며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제사의식이 거행되었다. 성소에서의 이러한 의식은 오늘날 예배에서는 예수의 배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설교를 의미한다.

또한 둘째 성막인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임재하시는 곳으로, 현대 예배에서 아이들 예수와 혼인하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을 간구하는 ?축도?가 이에 해당한다. 성막은 교회의 모형으로,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식은 별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연합과 구원 서정의 단계라는 영적 의미가 있다. 이것

을 깨닫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참 평화와 천국을 맛보며 행복해질 수 있다.

영성 예배 순서의 실례(Original Form)

1. 회막문(부르심). 사회 -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회중 - '주님, 이 죄인을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2. 성막물(회 개). 사회 - '회개하는 순서입니다.' 회중 -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였고, 불경하였으며,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치 않았고, 이웃도 사랑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 송: 338장(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 변제단(분 헌)

사회 - '다같이 분헌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회중 -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죽겠습니다. 이 몸 산제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송: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4. 물두멍(영 절)

사회 - '다같이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중 - '나의 신앙 되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세마포로 신부 단장하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5. 성 소(말 씀)

성경봉독 - 장 절, 사회 -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중 -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설교 - 묵회자 기도 - 설교자

6. 광 고; 사회자 *찬송: 62장(성부 성자 성령)

7. 지성소(축 도) 사회자 -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원하는 축도 시간입니다. 다같이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 도 - 설교자나 다른 묵회자, 8. 폐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림. 서로 인사와 교제. 성막과 예수 생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행하심과 말씀 속에는 그분의 무한한 경륜과 깊은 영적 의미들이 들어 있다.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담기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나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귀로 들어야 한다. 고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장소와 죄 사함의 이루어지는 구원의 장소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하나 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송태규 박사

JTNTV 주필



구원의 서정을 포함, 수많은 영적 의미를 내포한 보물 상자인 것이다. 이번에는 성막 속에 숨겨진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자.

1. 회막문과 예수

회막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 구원의 문'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요 10:7).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한평생 조상죄와 자범죄를 지고 살아가다. 그런데 모든 죄인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므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구원자이신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오직 그분을 통하여 알고서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회막문이 성막 동편에 단 한 곳에만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성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들어갈 수 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희생 제물로 뿔써서 회막문 안으로 끌려오는 어린 양은 우리를 대속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어린 양이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운명인 것이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사 53:4) 회막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며, 또 회막문으로부터 지성소까지의 험하고 먼 고난의 길을 상징하기도 한다.

2. 성막물과 예수

성막물은 죄인이 오는 장소요, 내 죄를 대속받기 위하여 희생제물이나 대신 죽어야 하는 두렵고 떨리는 장소이다. 제물로 끌려온 어린 양이나 송아지가 결박당한 채 칼로 찔림을 받는 고통과 죽음의 장소이다. 성막물은 바로 셋째마레 동산을 상징한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채로 그곳으로 끌려와 십자가에 결박당하고 벌거벗겨진 채로 죄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양손과 양팔에 대못이 박히신다. 땅땅땅 망치소리..... 그 고통, 비명, 처절한 몸부림....., 그에게 못 박은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죄인을 아닌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못을 박았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이요, 나인 것이다. 내가 주님을 못박아 죽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받아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 여름 타작마당 7 |

여름은 음식들이 쉽게 상하고, 짐승이 출몰할 때
불법이 성행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나호에 이어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보고, 세상이 너무도 약해졌음을 보고, 마음의 고통을 느껴야 한다. 속이 상해서 견딜 수 없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올바른 믿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신자들을 바라볼 때, 속이 푹푹 찡는 고통을 느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타락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도 상하셨다. 저 불법한 행실은 바로 인간들이 욕을 이기지 못한 본능인 것이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이렇게 약해진 때가 어디 있었는가? 오늘 이 시대의 문화는 짐승 문화로 곧박잡한 때이다. 짐승들이 너무도 많다. 이 때에 우리는 가슴을 찢고 울어야 할 때이다.

여름은 '각종 음식물이 쉽게 상하는 때'

말세에는 성도들의 믿음이 상한다. 말세에는 믿음이 없다. 생명이 없다. 살아 있는 믿음이 없다. 싱싱한 말씀, 싱싱한 믿음이 없다. 그래서 신자들의 믿음이 쉽게 상한다. 왜 상하는가? 여름이 되면 상한다. 너무도 더워서 상한다. 말세에는 영향력이 부족하다.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추세는, 경제, 정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목회자들까지도 타락하기 쉬운 때이다. 말세에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반곤하여 없다는 것이다.

마 24:12에 '불법이 성행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고 하셨다. 이것은 정상적이다. 답후 3:1~5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급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시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패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 라고 하셨다.

지금 말씀을 보고 들으신 대로 오는 우리는 말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신앙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신앙이 부패되니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왜 부패되었는가? 타락한 신앙으로부터 감염되었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짐승들이 많이 출몰하는 때'

많은 짐승들이 올라오는 때이다. 여름에는 짐승들이 가장 힘을 발휘하는 때이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는 사단, 마귀 악령들이 보낸 적그리스도 이것들이 날고뛰는 말이다. 우리가 똑똑히 할 것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분하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하나이다. 마귀가 하나이듯, 적그리스도는 단수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 수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의 모든 이단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여호와의 증인, 남묘호랭고 등을 숭배하는 자들도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림자로 주었다. 네로나, 티도나, 히틀러와 같은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짐승들은 모두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임을 알아야 한다.

여름에는 '모든 음식물이 쉽게 상한다.'

말세에는 성도들의 믿음이 상한다. 말세에는 믿음이 없다. 생명이 없다. 살아 있는 믿음이 없다. 싱싱한 말씀, 싱싱한 믿음이 없다. 그래서 신자들의 믿음이 쉽게 상한다. 왜 상하는가? 여름이 되면 상한다. 너무도 더워서 상한다. 말세에는 영향력이 부족하다.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추세는, 경제, 정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목회자들까지도 타락하기 쉬운 때이다. 말세에는 생명력 있는 믿음이 반곤하여 없다는 것이다.

마 24:12에 '불법이 성행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고 하셨다. 이것은 정상적이다. 답후 3:1~5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급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시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패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 라고 하셨다.

지금 말씀을 보고 들으신 대로 오는 우리는 말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신앙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신앙이 부패되니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왜 부패되었는가? 타락한 신앙으로부터 감염되었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짐승이 많이 출몰하는 때이다.'

많은 짐승들이 올라오는 때이다. 여름에는 짐승들이 가장 힘을 발휘하는 때이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는 사단, 마귀 악령들이 보낸 적그리스도 이것들이 날고뛰는 말이다. 우리가 똑똑히 할 것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분하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적그리스도는 하나이다. 마귀가 하나이듯, 적그리스도는 단수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 수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기남 목사

편집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의 모든 이단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여호와의 증인, 남묘호랭고 등을 숭배하는 자들도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림자로 주었다. 네로나, 티도나, 히틀러와 같은 자들은 다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짐승들은 모두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임을 알아야 한다.

마 24: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한 받은 자들도 미혹하려.' 고 했다. 앞으로 수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신앙생활 마저도 할 수 없도록 훼방할 것이며, 미혹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 49:20에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고 했다.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는 말이다. 시대를 모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과와는 상관없는 것들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은 자들이다. 이러한 존귀에 처한 자가 누구인가? 성경에서 존귀에 처해 있는 자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를 가리킨다. 존귀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렇게 존귀하게 처해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고 하셨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슴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이는 곧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다. 무조건 예수만 다 된다는 말이 어디에 있는가? 믿지만 하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말이 어디 있는가?

존귀에 처해 있으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해도 이점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요 1서 2:18에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많은 적그리스도란 말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을 가리킨다. 그래서 마지막 때인 줄 알라는 것이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단들이 나온다고 했다.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줄 알라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축 부 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패밀리처치**

주일예배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목회자 서명범, 목회자 지복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앙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7시, 금요일 저녁 7시
화요일 2시 집회

담임 김진우 목사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48-161
H.P 010-3499-2441

대한예수교 장로회 **홍성제일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담임 오종철 목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장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금천시온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담임 배영자 목사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주일 2부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담임 박원근 목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010-4320-1507

대한예수교 장로회 **벤엘중앙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담임 이혜진 목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능력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오전 11시
주일오후 7시
수요일 오후 7시
새벽기도 오전 5시30

담임 최순란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77 지하 1층(안양동)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동급평전-1급 ~3급자 환영)

원장 박순중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580-1004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담임 최낙현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원중앙교회**

주일예배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교회**

주일예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한경총 사무총장
서도영성신학신학원 원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010-7585-1955

조에 교정선교회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훈련소)

담임 유순옥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한국교회총연합 부활절 메시지 (부활절의 기도)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승희 목사, 박종철 목사, 김성복 목사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맞이합니다.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소리 높여 교회를 비판할 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인이심을 목소리 높여 부릅니다. 다른 진리를 가르치는 주 많은 선생들과 인기에 영합한 이들의 목소리에 현혹된 이들은 말하기를 네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 하며 각각 제 갈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칭 선생들은 허탄한 길을 가르치며,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의 즐거움을 삼게 하며, 거짓으로 밝은 미래를 전망하는 속임수에 현혹된 사람들은 헛된 위로에 갈 길을 잃었습니다.

이들에게 목자가 없으므로 유리하며 곤고하오니, 부활하신 주님이며 오셔서 이들을 구원하소서.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기에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자기 배만 채우는 데 공교한 논리로 변명합니다. 이들은 영원을 믿지 않으므로 하루의 행복과 왜곡된 기쁨에 편승하여 가까이 작은 생명을 해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며, 부활의 날은 주께서 정하신 것이니 우리는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 주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의 교만과 신실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형제끼리 하나되지 못하며 서로 분쟁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버리지 마소서. 아버지의 복 주심을 떠나 허망한 길로 속히 달려가며, 자만하는 지도자들을 용서하소서. 이들에게 자기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사 다음 세대를 위한 조국 대한민국을 세워가게 하소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생명으로 한국교회를 살려주소서. 모든 교인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변화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이 땅에 좌절하사 치유하소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르는 이들이 그 길에서 속히 떠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진리를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9년 부활절에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박명수 교수,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월요조찬기도회에서 특강

서울신대학교 박명수 교수(현대기독교연구원 소장)가 15일 오전 7시 순복음강남교회에서 열린 제435차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잔용태 장로) 제435회 월요조찬기도회에서 '임시정부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다.

박 교수는 "3.1운동과 임시정부, 1948년 제정된 헌법을 알아야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 수 있다."며 "올해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이어서 뜻깊은 날이다."고 말했다.

또한 "3.1운동과 임시정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1919년 3.1 기미 독립선언서도 중요하지만 임시정부 헌장은 새로 세워지는 나라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정한 설계도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20개 시가 있었다. 모든 시에는 서양 사람을 중심으로 미션스테이션이 있었다. 기독교 병원, 기독교 학교, YMCA 같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그 도시의 문화를 이끌어갔다."며 "장식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3.1운동도, 105인 사건도, 해방 이후 건국운동도 미션스테이션에서 시작됐다. 이 미션스테이션처럼 성시화운동이 한국사적인 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임시정부는 나라를 만드는 건국운동"이라며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이 선교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선은 일본의 지방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썼다."며 "나라를 빼앗긴 후에 민족의 선각자들



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는 통치자는 피통치자의 동의에 의해서만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한국 동포들이 쓴 <신한민보>에 쓴 글을 보면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썼다."며 "그 중에 월슨의 제자였던 이승만 박사가 도산 안창호 선생과 함께 이 운동을 해나갔다."고 말했다.

그리고 "1919년 2.8 동경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또한 상해에 있는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것이 국내에 영향을 줬서 3.1운동이 일어난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는 상해한인교회에 출석하던 여운형, 김철 등 청년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국내에서 파견한 현순 목사들을 중심으로 했다. 천도교의 돈

을 받아 현순 목사를 중심으로 한 민족 대표들이 상해에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승만 박사와 도산 안창호가 참여했다. 또한 만주와 러시아에 있는 이들이 상해로 온 것"이라며 "이는 월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헌장에 국제연합에 가입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런데 월슨의 민족자결주의와 불세비키혁명 같은 선상에 놓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평양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도 평양신학교 사무엘 마켓 선교사를 중심으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상해임시정부는 기독교적인 나라, 민주주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며 "이승만 박사를 빼놓고 3.1운동을 설명할 수 없다. 월슨을 상대로 1918년 11월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인물로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 등 세 사람을 대표로 뽑았다."며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상해에서도, 일본에서도, 국내에서도 이승만을 중요한 인물로 인식했다. 상해 임시정부에는 언더우드와 양아들 김구식, 안창호, 이승만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상해임시정부 전문에는 '신인일치', 헌장 7조는 '신의 의사에 따라', 선포문에는 '신의 국의 기초가 되나니라' 등 '신'이라는 단어가 세번이나 나온다."며 "특히 7조에

는 '신의 뜻에 따라 세워진 대한민국은 국제연합에 가입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일본 학자들은 '신'을 기독교의 하나님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의 많은 인물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신'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 민회의 기관지 <신한민보>에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것을 영어로 'GOD'라고 번역해 당시 언론사들에게 보도자료로 보냈다. 이런 내용이 조선총독부 불온문서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해임시정부 1919 9월 통합임시정부(로령정부, 한성정부, 상해정부가 통합함)가 세워지면서 만든 헌장에는 '신'이라는 단어는 빠졌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상해임시정부는 계급을 초월한 보편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했다. 그리고 3권 분립을 했다. 또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 소유의 자유를 담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사회를 담았다."며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 헌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홍보를 하면서 연표를 쓰면서 상해임시정부를 언급한 후 4.19혁명만 언급하면서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빠져 있었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1948년 5월 10일 중앙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투표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됐다. 그것을 UN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해 12월 UN에서 우리나라를 한반도에 세워진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승인을 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6.25가 발발했을 때 UN이 참전할 수 있는 명분이 주어졌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상해임시정부에 나타난 기독교 정신을 잘 지키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 성시화운동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 북미 대화가 지속되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했다. 또한 낙태예방, 자살예방, 저출산 극복 등 생명존중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했다.

또한 오는 9월 개원 예정인 '성시화 지도자 아카데미' 준비 작업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전국 시군과 해외 도시들에서 전교회회 전복음을 전지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성시화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구했다.

또한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뉴욕 성시화총력전대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올 가을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국제성시화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저출산 극복운동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가치 있는 새로운 교회가 되라

월서연합감리교회 한어회중 40주년 창립기념예배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신영각 목사) 한어회중 40주년 창립기념예배가 지난 7일(주일) 교회 본당에서 담임 신영각 목사 집례로 시작된 기념예배는 석기향 권사의 전주를 시작으로 회중이 다함께 '기뻐하며 경배하세' 입제찬송을 하는 가운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입제를 한 후 예배로의 부르심(사편 96편), 송영, 회중의 공동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예배무용팀의 무용과 캘리포니아-태평양연회 목회자 부부의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특별찬양이 있은 후, 교회 40년 공동체 이야기 동영상 상영과 이광환 장로(경신도 대

표)의 교회연혁 설명 및 이명숙 권사의 성경봉독과 연합성가대의 '주는 반석' 특송이 있은 후 전영호 교수(세인트폴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의 설교로 이어졌다.

전영호 교수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에스겔 37:1-14, 요한복음 11:32-41; 43-44)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잘못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할 때 땅은 오염된다. 그리고 그 오염된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손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 더러운 손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려 존재적 오염에 이르게 된다. 생명이 없으니 메마르게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재적 생명이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교회는 가치있는 교회가 될 때 새로운 교회가 된다. 새로운 교회가 되면 영혼구원의 전도가 잘 될 것이다"며 "가치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에 뿌리박은 소망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회중성가대가 'Let There Be Praise' 특송 후 이광순 원로목사가 권면을 통해 "겨자씨의 꿈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사명이다"며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명을 이루는 것, 이러한 사명감을 갖고 사는 예수 믿는자들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영호 목사(드림교회 담임)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월서연합감리교회는 1907년 HOBART METHODIST CHURCH로 시작하여 1919년 WILSHIRE METHODIST CHURCH로 명칭이 변경된 후

1931년부터 현재의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한인회중, 히스패닉 회중, 필리핀 회중이 예배를 드리며 2002년부터는 한인회중 중 EM(ENGLISH-KOREAN MINISTRY)이 분리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축 부활 + 국제에녹부흥사회
주여! 독음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게 하소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합케 하시는 그의 총합함이니라(엡1:23)

총대표회장

곽영민 목사, 이흥희 목사, 임순학 목사, 최동준 목사, 이인환 목사, 장사라 목사

재정부장 수석상임회장 **고문** **고문** **회원**

김지연 목사, 김예은 목사, 정기남 목사, 이원호 목사, 이영미 목사

2019년 표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부흥사회"

"그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위로로 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행9:31)

고문: 이원호 목사, 정기남 목사, 지문: 이병학 목사, 총재: 이흥희 목사, 수석 부총재: 임순학 목사, 부총재: 함선교 목사, 박은서 목사, 윤동훈 목사, 김성수 목사, 최동준 목사, 총대표회장: 곽영민 목사, 수석 상임회장: 김혜중 목사, 파라과이 대표회장: 박성진 선교사, 일본 대표회장: 이영자 선교사, 캄보디아 대표회장: 박달수 선교사, 파키스탄 대표회장: Mark Harby 선교사, 사무총장(상임회장): 이인환 목사, 상임회장: 윤주만 목사, 재정부장(사무총장): 김지연 목사, 회계(사무총장): 실무회장: 김영애 준목, 감사(재정실무회장): 정사라 목사.

실무회장: 전지리 목사, 김창숙 목사, 수석 공동총재: 오성훈 목사, 공동회장: 이예인 목사, 이현주 목사, 황선영 목사, 김희영 목사, 전진수 목사, 백익서 목사, 조명희 목사, 우시원 목사, 회원: 이호성 목사, 김수자 목사, 김성호 목사, 김관숙 목사, 이영미 목사, 정현영 목사, 김선우 목사, 김연희 목사, '회관가입 및 집회요청 문의: 사무총장: 010-8291-8081, 사무국장: 010-6778-0651'

고승곤 목사 초청 신유 특별 성회

시(107:20) 내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쳐서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막 10:27)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강력한 말씀의 선포로 신유와 각종 문제 해결!

- 성경적 은사로 각종꿈 해석
- 성령의 강력한 기쁨 부음
- 율법의 저주 속량 선포
- 재정 회복과 기쁨 부음
- 모든 질병 치유

강사 고승곤 목사 바울교회

신유사역자 고정은 목사 낮은교회

신유사역자 홍혜선 목사 바울교회

• 일시: 4월 18일(목) 저녁 7시30분 ~ 21일(주일)

• 장소: 낮은교회 서울시 강동구 천호2동 307~9

• 문의: 010-4733-0603(담임 고정은 목사)

• 후원: 마르투스(martus) 부흥협의회

세계로열린선교방송, JTN TV 지저스타임즈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는 성회(고후4:15)

김평호 목사 부흥사역보고

열두광주리기도원 춘천에서 세중시로 이전

새 능력 새 은혜 새 역사

김 평 호 목사

- 열두광주리기도원 원장
- 선한목자부흥사회 회장
- 호산나 부흥사회 총재

김평호 목사 부흥회 사역지 일정

4.1 - 4.4	대구 생명빛교회	5.6 - 5.9	인천 평강기도원
4.8 - 4.11	열두광주리기도원 (양성대 목사 초청) (삼막기도원세미아)	5.13 - 5.16	대구 열방기도원
4.1 - 4.20	필리핀 순가 신타볼로 (민음교회)	5.20 - 5.23	열두광주리 (노베드로 목사 초청)
4.22 - 4.25	서울 햇빛중앙교회 (세계민족기도원)	5.27 - 5.29	충화 수양회
4.29 - 5.2	아산 영광기도원	6.3 - 6.6	대구 불 능력기도원
		6.10 - 6.13	포천 호렙산기도원
		6.17 - 6.20	대구 주향기기도원
		6.24 - 6.27	대구 평강기도원

*** 2019년 상반기 성회 신청접수 합니다.**

열두광주리기도원

세중시 연서면 도신고북로 438

김평호 목사 010-8411-0191

피종진 목사 초청 4월 국내·외 성회

010-5255-7777
God Bless 3333@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0
T: 02)3411-9191
F: 02)401-7770
F: 02)3411-9111

피종진 목사

1(월)~3(수) 광주 살롬선교센터(원정 목사) ☎062432-6392

5(금) 오전 오산교회(자살기념금식)도원원정 권경환 목사 ☎(031)947-0091

주최: 한국기독교영동총회(대표회장 강종규 목사)

6(토) 오전 서울 명동교회(최요한 목사) ☎ 010-3767-0347

6(토) 오후 맥아더대군 기념행사(한국 준비위원장 홍성선 목사)

장소: 인천 자유공원 ☎032761-4774

7(주)~10(수) 파주 세계로광림교회(정수민 목사) ☎(031)949-9121

11(목)~13(토) 인천 천국생명교회(김천국 목사) ☎ 010-5414-4641

14(주)~17(수) 군포 성광교회(김인기 목사) ☎(031)394-2733

15(월)~16(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동서울노회 정기노회

장소: 하남 정운교회(김영규 목사) ☎(031)796-0341

18(목)~20(토) 서울 에베다교회(정준국 목사) ☎ 010-3403-9190

22(월) 오전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MEC) 영어토론회

22(월) 오전 KAICAM (사한국목립교회선교단제연합회)회장 송용필 목사

장소: 분당 할렐루야교회(김숙옥 목사) ☎(02)3673-1323

22(월)~26(금) 베트남(Viet Nam) 다남 MT 및 원주인성회 ☎ 010-7291-0291

주최: 한국기독교영동총회(대표회장 강종규 목사)

28(주) 저녁 서울 사도교회(김희준 목사) ☎ 010-8633-0190

29(월)~30(화) 서울 제일열방교회(이태순 목사) ☎ 010-7711-4203

이사야 1장 1회강해 A Study on the Book of Isaiah

1 이사야의 생애

이사야서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사야의 생애는 왕하 18:13-20:21에 의해서 보충되는데, 사36-39장은 왕하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다. 이사야는 B.C. 760년경 예루살렘에서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여기서 언급되는 아모스는 선지자 아모스와는 다른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때는 웃시야 왕이 죽던 해(참조, 사 6:1; B.C. 742년)이며, 그는 여선지자(참조, 사 8:3)와 결혼하여서 두 아들(스알아습, 마헬살랄 하스바스)을 두었다. 그의 사역은 유다의 세 왕, 즉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통치하에서 약 40여 년 동안 계속된다.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마지막 언급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공략하려 왔을 때(B.C. 701)인데, 이때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은 이사야에게 기도를 호소했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참조, 히 11:37; 왕하 21:16).

1) 이사야의 소명

본문에는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B.C. 742)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참조, 사 6:1)라고 말하면서 그가 본 환상을 중심으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유다의 출중한 일꾼인 웃시야 왕의 죽음은 유다와 이사야에게 큰 충격이었다. 유다의赫赫한 과거사는 이제 다 지나가고 나라의 장래는 암담하였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불안한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는 이사야는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기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진정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는데,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하도다'(참조, 사 6:3)라고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지 않은가! 이때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존전에서 이사야는 당시에 광배하던 의

식(형식)적인 종교의 무익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아무 것도 아니며, 완전히 무력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함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라'(참조, 사 6:5)고 외친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의해서 죄 사람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졌으며, 그의 마음은 새로운 소명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니까, 그로 인해 모든 것이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이제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확실한 인식이 생겼는데,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주권적 통치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비로소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참조, 사 6:8)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참조, 사 6:8)라고 대답한다. 그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뜻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2) 초기 사역(B.C. 742-734) 이사야의 성전 체험을 미루어 생각해 보건대 그는 성전의 일과 가까운 신분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이사야를 제사장, 또는 성전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상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소명 받은 직후 이사야의 초기 사역은 비교적 당대의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악을 규탄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참조, 사6:9-10). 그는 분명히 자기 백성의 완악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가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공적인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B.C. 734년 시리아-에브라임 군대가 유다를 침공한 시기부터이다. 그는 앗수르의 보호를 의지하려던 아하스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대했는데, 그것은 이러한 정치적 동맹이 반드시 종교적 혼합주의로 치달게 되고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상실케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

김성립 목사

제자신학원



문이였다(참조, 왕하 16:10-18).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것은 이때였는데, 이 예언이 갖는 의미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길이며, 불신앙이 환난을 자초한다는 것을 강조함이다. 따라서 이사야의 근본적인 의도는 정치적 인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율 바른 뜻을 전하려는 종교적인 데 있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 하리라(사 7:9)'

3) 공적 생활에서의 은퇴 시기(B.C. 734-715)

이사야는 아하스 왕이 앗수르와 동맹을 체결한 후 이제 자기의 주권적 통치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비로소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참조, 사 6:8)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참조, 사 6:8)라고 대답한다. 그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뜻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4) 중반기 사역(B.C. 715-705) 히스기야 왕이 아하스를 계승하였을 때 이사야는 다시 자유로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의 외교 정책을 변화시킬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외교 정책이 바뀌기를 기다린 사람이었다. 711년에 앗수르의 다르단이 블레셋의 요새 아스돗을 점령하자 이사야는 애굽과 구스(에티오피아)의 당할 운명을 예고하는 표적과 징표로서 맨발과 알몸으로 다니라는 명령을 받았다(참조, 사 18장; 19:1-15). 그는 3년간을 그렇게 다녔는데, 그것은 히스기야를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사야는 점차로 증가되어 가는 앗수르의 포악성을 유다를 위한 하나님의 연단으로, 앗수르를 하나님의 책으로 본 것이 분명하다(참조, 사 10:5-10).

(다음호에 계속...)

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도영성 신학(1)

하나님의 생명력을 깨닫은 사도들 순교를 각오한 사역

오늘날 영성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영성훈련, 영성 세미나, 영성신학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상황이 이를 증명한다. 이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영성'이라는 용어가 필요하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성의 필요를 생기게 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영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왜 오늘날 이렇게 영성이라는 용어가 활발하게 논의되어지고 있는가?

오늘날 구교와 신교 교인들도 사도신앙을 고백한다면 사도들의 생명력이 순수한 복음사역을 하신 것처럼 성도들은 성경의 생명력에 의해 사역해야 한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력으로 사역을 하셨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생전에 하나님의 생명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령의 생명력이 임하시므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끼고, 깨닫게 되어 순교까지 하게 되었고, 이는 모든 초월적

도를 사역을 하게 되었다.

영성에 대한 관심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 모두가 가지기 시작했다. 이는 오늘날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교회 역사상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용어를 말한다.

한편 오늘날 영성이라는 용어가 활발하게 논의되어지고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상적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사람들은 우주와 자연의 모든 것들을 인간의 경험과 과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합리적인 사유 체계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고, 모든 것을 체계화시켜서 관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은 인간의 감정과 특별히 영원을 생각하는 면을 철저하리만큼 무시하게 만들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사상 배경에서 내재적 신학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는 모든 초월적

인 것을 인간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것들로 환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현대 과학 문명의 발달에 따라 인간들의 삶 속에 기계화로 인간성 상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이 기계와 함께 생활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해 인간도 또한 기계처럼 움직이는 사회를 살아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인간을 이러한 경제적 주체로만 파악한 유희론적 사고로 인해 사람은 생산과 소비 구조의 존재만으로 보게 되고, 단순히 남아 있는 동물적인 성향에 따라 합리적이고 쾌락적인 유희에만 관심을 쏟다 보니 인간의 내면이 메말라 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적 흐름의 반동으로 사람들은 제3의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과 점성술, 신비 종교들이 그렇다고



홍향표(요한) 목사
사도영성 아카데미 원장

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만으로 모든 것을 체계화하려고 했던 시도는 인간의 감성과 영성을 지나치게 무시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오늘날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메말라버린 인간의 감성과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 시도된 영성운동들은 하나같이 확고한 토대가 없다는 데 있다. 그들이 시도하고자 하는 운동들이 하나같이 잘못된 토대 위에서 시도되고 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영성운동들은 사회와 문화가 변화되면서 수없이 변질되고 바뀔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메말라 버린 인간의 내면은 끝없는 곤고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다음호에 계속...)

KBS가 공영방송인 것을 망각하고 있다

편향된 저질 강연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인가?

KBS는 공영방송이다. 그만큼 책임감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공영방송이란 개인이나 이익집단의 방송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KBS는 역사와 국민들을 향하여 첫발을 내딛고 있다. 지난 16일 KBS 1TV에서 동양철학자 김용옥 교수(한신대 석좌교수)가 '도올아인오방간다'라는 프로그램의 방송은 논과 귀를 의심하게 했다.



유민석 목사

이날 김 교수는 여러 가지로 왜곡되거나 편향된 역사인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켰다. 그는 이날 5~6가지의 문제성 발언을 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로 표현하는가 하면, 이승만을 국림모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가 하면 소련이 한국을

분할 점령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여, 그의 역사인식이 얼마나 편향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것이 KBS의 역사 인식과는 다르다고 변명할 수 있겠는가?

그의 발언에 대하여 김명섭 교수(연세대, 전 한국정치외교학회 회장)는 '역사의 일면으로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반이승만적 관념에 갇혀서 과거를 해석하는 역사 정치의 폐해를 보여 준다'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역사정치는 이상형을 이념적으로 설정해 놓고, 그 방향으로 과거가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신조에 갇혀서 역사를 해석하면, 위험한 역사정치가 된다고 평가하였다.

또 KBS 이사를 지내고 평론가로 활동 중인 조우석 씨는 'KBS와 도올이 합작하여 현대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이는 교양 프로그램이 아니니 대한민국에 도발하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그러면서 도올은 '이미 유통기한이 끝난 학자로, 좌편향 환자'라고 평가절하 하였다.

그러면서 조우석 씨는 KBS는 현재 11회째 도올을 등장시켜, 역사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태도와 반공을 비난하는 '통일 지상주의' 노선을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한다. 문제는 도올 김용옥 교수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이 악히 잘 알려졌다. 공영방송인 KBS가 주말 황금 시간대에 도올을 포진시켜 역사 강의로 전파를 타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도올은 잘 알려진 대로 '동양철학자'이다. 그는 정통 역사학자가 아니다. 거기에서 편향성 때문에 그의 강의 때마다 잠음이 있었다.

그는 신학자도 아니면서 지난 2007년에는 EBS에서 성경 요한복음 강의를 하였다. 그 때에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드러나 기독교계와 큰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모 방송인은 도올을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사를 가진 사람으로까지 평가한다. 그런데도 KBS가 그와 합작하여 노

이즈 마케팅으로 도발하니 참으로 애처롭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문가가 아니면서 전문 분야의 강의를 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더군다나 국민의 자신인 TV 전파를 타면서 왜곡되거나 편향된 강의를 한다면, 그것은 교양이 아니라 선동이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선동인지 진실을 담은 교양 강의의 인지를 구별할 줄 안다.

역사를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지나치게 편향되고 사실이 아닌 것을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결국 역사가 아닌 허구가 되는 것이다.

현재 공영방송 KBS가 국민을 향하여 첫발을 내딛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짐작한다. 그러나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헛되이 역사를 바꾸려는 시도는 결국, 맹렬한 심판의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을 향하여 날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아찌 감당하려 하는가?

KBS는 공영방송이며 국가 기간 방송이다. 또 공영방송인 KBS는 국민의 자산을 잃지 말라. 그리고 그 주인도 국민임을 잊지 말라.



축 2019년 부활절감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교계의 표준총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허창범 목사
푸른솔교회



이영풍 목사
빛 교회



박정균 목사
변성교회



정순옥 목사
미래선교회



이준영 목사
낙타방송



성구 목사
송석교회



조영신 목사
시온산교회



지요한 목사
홍해영일교회



최선녀 목사
소망교회



마순옥 목사
사랑하는교회



최정수 목사
임상교회

웨신총회의 자랑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으로 한국교회를 견인하는 교계의 표준 웨신총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을 바탕으로 설립된 미국 웨스트민스터 비브리칼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 Robert S. Rapp(라보도) 박사와 김달생 박사가 1967년 서울 흑석동에 설립한 (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총회가 창립되었다. 현재는 종교 개혁을 통해 확인된 성경 중심의 신학과 하나님의 종신의 예배와 삶을 실천하고 가르치기로 서약하는 모든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가진 목회자들과 함께 교계의 표준총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교단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총연합회 회원 교단으로 연합과 화합에 협력하고 있다.

목사 안수 및 교단 가입 문의 : 010-6878-1324

총회장 허창범 목사(신학박사, 교육학박사)

총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172(3층) ☎02-835-2606~7 Fax 02-835-2608 <http://ws21.org>



2019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프월드미션 총재
- 기독교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목: 그리 오레지 아니하여 1 성경: 이사야 10:24-25 찬송가 582장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낼 때 애굽에 있는 자신의 백성에게 관심을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앗수르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너희를 괴롭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격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식의 회초리는 언제까지 필요합니까? 자식이 정성 차릴 때까지입니다. 애굽처럼 앗수르도 필요할 때 아궁이로 보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내 품에 안길 자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 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목: 그리 오레지 아니하여 2 성경: 이사야 10:24-25 찬송가 460장

하나님은 오래지 않아 대적들을 체찍질 하시고 내 백성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오래지 않아 분노를 그치고 하나님의 진노로 멸하신다고 합니다. 때리지만 품을 자식이 있고 체찍질로 사용하지만 버릴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땅을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오직 복음만을 외치고 주의 사랑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노를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사10:25).

제목: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빌립보서 1:28-29 찬송가 586장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든지 반대에 직면하게 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멸망으로 정해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꺾박 받는 것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도 귀한 복입니다. 순교가 이기는 길입니다. 능력의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1:29).

제목: 새 영성 성경: 에스겔 36:27 찬송가 370장

굳은 마음은 문자적으로 볼 같은 마음입니다. 경고와 질책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심령을 가리킵니다. 유대백성의 멸망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이전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상태의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그 뜻을 좇으려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마음입니다. 경고와 훈화에 회개하고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제목: 성령을 힘입어 성경: 누가복음 11:20-22 찬송가 458장

하나님을 이길 신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것이 강해도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면 주님이 주십니다. 체면을 내려놓으십시오. 기도는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굴복이 있지만 결국 지내고 보면 올라가게 하십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가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보다 강하고 권능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 다. 주님께서 사단을 지배하시고 이기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눅11:20).

제목: 복음에 물들자 성경: 요한복음 7:25-36 찬송가 582장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 일부가 예수님의 출신지에 대해서 반문을 합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대하여 편견이 심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더 큰 죄악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사상에 물들지 말고 복음에 물드시기 바랍니다.

제목: 예수님의 권세 성경: 마가복음 11:27-33 찬송가 93장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의 권세에 관하여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 시험받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궁지에 빠뜨릴

목적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지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느님으로부터나 사람으로부터나 내게 대답하라' (30절)고 질문하여 그들로 당황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에 대답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구경꾼입니까? 시비꾼입니까? 주인공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제목: 한나의 기도 성경: 사무엘상 26:9 찬송가 456장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높아지는 것이나 낮아지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올려 주십니다. 우리의 말과 기도 속에 품위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복된 말을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제목: 분별력

성경: 느헤미야 6:1-14 찬송가 388장

산발랴를 대표한 유다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살해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재건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씩이나 느헤미야를 유인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요구에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적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가 음모를 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늘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목: 성벽을 세우라 성경: 느헤미야 6:15-19 찬송가 351장

느헤미야서는 주전 440년경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내용입니다. 성벽은 당시 군대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약탈자들이 마음대로 유린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면 대적들은 다 두려

워하고 크게 낙담합니다. 그 이유는 대적들도 주께서 일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세상의 가나안 문화에 섞이지 않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목: 그분이면 죽합시다 1

성경: 마태복음 16:1-12 찬송가 279장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원래 교리가 달라서 섞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럴 때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위해서 한 마음으로 불어넣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시고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 속에서 삼일 만에 살아 난 것처럼 예수님도 삼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삼일 만에 일어나는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참 목자 참 양은?(요10:1~15절)

편집인 정기남 목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풀 같이 달고 흠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들으면 들을수록 풀 같이 달고 맛나게 먹어야 한다. 참 양인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탄 감동 감사가 내 입을 통해 터져 나와야 한다. 성전에서 목사님을 통해 듣는 말씀이 맛이 나야 하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맛이 나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와 눈이 열려야 한다. 그만큼 열드려 기도드리고 말씀을 흠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주님께로부터 임한다. 성령님을 통해 역사는 시작되고 영안이 환하게 열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요 먼저 세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우리는 역사적인 면에서 읽어보라.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서 교훈을 얻는 것이다.(롬 15:4). 둘째 성경은 복음적인 차원에서 읽어보라. 성경의 말씀을 역사적인 면에서

교훈을 삼고, 현재 믿음으로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롬 10:17)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인 면에서 읽어보라. 이렇게 성경을 사모하고 읽었다면 분명코 미래를 사는 소망과 삶의 비전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께 주신 성경말씀을 어떻게 듣고 읽었는가에 대해서 결과가 나타난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언어도, 행동도 생각하는 것도 달라진다. 지난날의 육적인 삶을 고집했던 자신의 행동과 언어를 생각해보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성경을 받은 사람은 지난날의 육적인 차원의 모습은 자신도 모르게 없어지고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간다. 이게 달라진 모습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을 성령의 술에 취한 자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 술에 취한 사람, 술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언어도 행동도 그의 삶의 모습은 부끄러운 자체뿐이다. 세상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의 망가진 행동과 언어 삶의 방식도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죄진 영혼이요 부끄럽기만 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생명의 말씀이

있고 강단을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일 낮예배, 주일 밤예배, 수요일 새벽기도, 금요일기도회, 구역예배, 물잔치 예배, 환갑, 칠순 등 이 엄청난 예배 가운데 술 취한 양이 없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한마디로 신앙이 식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같은 죄인의 구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두어 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식지 않을 성령의 용광로에 가두어 놓으셨으니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이다. 할렐루야!

이러할진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깨닫는 것 없다면 마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공중의 새(사단)에게 그 말씀을 빼앗기고 살았지 않았가? 이는 불행이다. 옥토에 뿌려진 씨는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말씀을 보면 옥토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요, 이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마 13: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창 29장에서 야곱이 베냐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후에 하란으로 이주해서 큰 사건이 터졌다. 그 사건에 보듯이 들의 우물은 교회의 모형을 가리키고, 그 우물결에는 세 양 떼가 있는데 이 세 양 떼는 세 부류의 교인들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본 말씀을 삼고하면서 '참 목자 참 양'의 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대하시면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소진우 목사 2017년-2019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기독교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2017년 9월	
4-8	은누리복음교회(회수권회임기호총재)
11-14	교단총회
18-21	종교개혁(백년기)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5-27	비전교회(김현환 목사)
2017년 10월	
2-5	추석주간
9-10	장기노회
16-18	주사랑교회(조연오 목사)
2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30-4	인도사역자방문주간
2017년 11월	
5-8	주안중앙교회(박윤순 목사)
13-15	동계부흥성회(예복교회)
19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22	열린중앙교회(신동홍 목사)
27-1	팔리온 사역자 컨퍼런스
2017년 12월	
4-6	삼동교회(고정익)
11-1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8-21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26-29	송구영신을 위한 산상기도

2018년 1월	
1-3	양평지역연합성회(회장 홍성장 목사)
8-10	상대교회(장인옥 목사)
14	온천교회(소지영 목사)
1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5-18	배방중앙교회(교회일일방한)
21-24	안양성문교회(윤노원 목사)
29-1	광은기도원(김현배 원장)
2018년 2월	
5-8	감람산기도원(이옥란 원장)
11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2-17	설 주간
19-21	점촌교회(김위수 목사)
26-28	살목교회(조연희 목사)
2018년 3월	
1일	안양감람산교회(이옥란 원장)
4일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3월은 불철 축복 대 심방의 달	
2018년 4월	
1일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일-4일	공평성결교회(조재용 목사)
9일-11일	산동교회(한성길 목사)
16일-20일	예복교회부흥회(소진우 목사)
29일-5월 3일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18년 5월	
31-3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4	안양감람산교회(이옥란 원장)
7-10	진주기도원(김정환 원장)
14	오산리교회(김기원 원장)
16-24	미주지역 부흥회
2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6월 7월은 안식절	
2018년 8월	
3	한울산기도원(이영금 원장)
6-8	천보산기도원(노예도 원장)
9-10	행복으로 가는 교회(하석규 목사)
13-16	광은기도원(김현배 원장)
19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23	감람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7-30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018년 9월	
2-5	문정사랑교회(홍성근 목사)
10-13	교단총회
13	평화의동산(이종진 목사)
16	천보산기도원(우정제) 목사
17-20	연대연합교회(박승현 목사)
24-26	선교연합집회

2018년 10월	
1-4	다내교회(김명수 목사)
8-10	독성교회(유종수 목사)
12	오산리교회(김기원 원장)
1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5-17	장기노회
18-19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1-25	은천교회(소지영 목사)
26	양평교회(김현배 원장)
29-2	선교연합집회
2018년 11월	
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5-7	행복이넘치는교회(이영건 목사)
8	안양감람산교회(이옥란 원장)
12-14	영광교회(송성준 목사)
15	보라진교회(구경모 목사)
19-21	강원교회(김원경 목사)
26-28	제천예복교회(장대중 목사)
2018년 12월	
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3-5	삼동교회(고정익 목사)
10-13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6-21	본교회부흥회
25-29	송구영신을 위한 산상기도

2019년 1월	
1-3	경기동부지역연합성회(회장 홍성장 목사)
5	한울산기도원(이영금 원장)
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6-9	주영광교회(김진관 목사)
14-17	광은기도원(김현배 원장)
21-23	평강교회(김정규 목사)
28-1	선교지방문
2019년 2월	
3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4-7	감람산기도원(이옥란 원장)
11-14	임아리교회(황형진 목사)
17-20	부여기독교연합성회(회장 소진우 목사)
25-27	보라진교회(구경모 목사)
3월은 축복심방의 달	
2019년 4월	
1-3	사랑교회(김성준 목사)
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8-11	예복교회(장대중 목사)
15-18	산동교회(한성길 목사)
22-23	장기노회
24-25	과천예복교회(노영수 목사)
28	화랑교회(정복근 목사)
29-1	삼성교회(김영명 목사)

2019년 5월	
6-8	천하성교회(하영목 목사)
13-16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22	동광교회(이영일 목사)
27-29	종성교회(김정환 목사)
2019년 6월	
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목사
3-5	천성교회(이원정 목사)
9-13	본교회부흥회
17-26	마주성회
27-28	세상연합성회(마(정복근 회장)
2019년 7월	
7월1-3	모리교회(조석희 목사)
4	평화의동산(이종진 원장)
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8-11	다내교회(김명수 목사)
15-19	선교지선교회(류세미 목사)
21-27	특별심방(도(정복근 회장)
29-1	설화산기도원(노예도)
2019년 8월	
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5-7	남부연합성회
12-22	광은기도원(김현배 원장)
19-22	감람산기도원(이옥란 원장)
26-29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40 (장암동)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꿈의교회

DREAMS COME TRUE...

죽 부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www.mokpodream.org

2019년 2명 이상 전도하는 성도가 되자...



담임목사 이 요셉

예배시간

주일 1부예배 (1일) 오전 7시 30분 주일 2부예배 (일) 오전 11시
 주일밤 찬양예배 (일) 저녁 7시 30분 삼일밤예배 (수) 저녁 7시 30분
 금요철야예배 (금) 저녁 9시 새벽기도회 새벽 5시
 오후기도회 오후 3시 : 저녁기도회 저녁 9시 : 철야기도회 새벽 0시 30분

주소 : 전남 목포시 산정로 322-3 (연산동) 전화/061-277-0496
 차량운행 : BUS 3번, 60번, 61번, 600번

2019년 죽 부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SINCE 1983.6.13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정

http://www.mokpojuan.com

담임목사
모 상 런

섬기는 분들

부 목 사 : 모정선 박민수 성삼수 모성온
 전 도 사 : 추정희 송선택 편공소아이(베트남·신학유학)
 파송선교사 : 임재선(베트남) 김은미(베트남)
 안윤기(캄보디아) 김진희(캄보디아)
 신길현(미얀마) 백현주(미얀마)
 송영관(태국) 최문정(태국)
 김미경(아프리카(00국))
 시 무 장 로 : 송영문 천은상 정승안 이현필 주종필
 김정서 김선호 모상후 송현중
 협 동 장 로 : 이병화
 은 퇴 장 로 : 고재현 원복희 장광호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목포주안교회 :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전화/061-272-4908, 276-1006
 남악주안교회 : 무안군 삼향읍 남악5로 60번길 17 전화/061-287-0692
 용해주안교회 : 목포시 용해지구로 61(연산동) 삼양빌딩 301호 전화/ 061-277-0691

멀티사이트 교회
 The Multi Site Church

죽 부활

부활의 기쁨 감사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마28:6)

대한예수교장로회 푸른솔교회

Pinetree Presbyterian Church

2019년도 교회표어
평강이 넘치는 교회(요 20:21)

부 목 사 : 김미경 협동목사 : 유한주, 양연석
 시무장로 : 안중기, 허성준, 함용호
 협동장로 : 이창수, 은퇴장로 : 궁재룡

예배시간 안내

주일에배 : 오전 1부 8:00
 2부 9:00 3부 11:30
 주일오후 : 오후 1:30
 수요일예배 : 저녁 7:00
 새벽예배 : 5:00
 금요철야 : 저녁 8:00

담임 허창범 목사
신학박사/교육학박사(예장웨신 총회장)

2020 VISION

광주에서 전세제로!!
 from Gwang-Ju To all over the world!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1번 안길 47. (영무예다음 2차 후문 앞 수완 중 옆)
 TEL : (062)953-4620 H.P : 010-8604-6075

바울선교신학연구원(사)한국상담교육발전협의회
 푸른솔협동조합(상담및대안교육전문) 푸른솔노인복지센터